

# 신생 이라크의 국가재건과 석유자원

## 대한석유협회 기획관리팀

### 쓰러진 후세인 동상

2003년 4월 9일 저녁,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사담씨티에 서있던 거대한 사담 후세인대통령 동상 주위에 수백명의 군중이 집결했다. 그들은 동상을 떼어내려고 하였으며 TV카메라도 모여들었다. 몇 명이 동상위에 올라 목에 로프를 걸고 군중들이 로프를 잡아 당겼지만 동상은 쓰러지지 않았다. 미군의 장갑차가 도착했다. 해병 대원이 동상의 다리를 버너로 달구어서 끊고 와이어를 걸어 잡아당기니 동상은 곧 쓰러졌다. 군중은 미친듯이 일제히 조소와 환희의 소리를 질렀다. 1979년 7월이후 약 24년간에 걸친 사담 후세인정권이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한 미·영국군 앞에 수도를 방어해야 할 「정예사단」은 저항다운 저항도 못하고 후퇴하였으며 후세인 대통령은 행방이 묘연한채, 두 아들은 은신처를 급습당해 사살되었다.

그 후로 7개월여가 지났다. 하지만 지금의 이라크는 미국이 바랐던 모습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미·영국군의 점령통치도 잘된다고는 할 수가 없고, 전투때의 미·영국군 전사자보다 전투종료후의 게릴라공격에 따른 사망자가 더 많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방군」이라는 생각으로 이라크침공에 근거해온 부시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위협받고 있다. 부시와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일찌

기 이라크현지에 「민주정권」을 정착시켜, 이라크 최대의 산업인 석유생산을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되지 않아 '내 코가 석자' 인 격이 되어버렸다.

### 이라크의 석유자원

미국의 이라크공격은 석유자원의 지배가 목적이라는 음모설이 뿌리 깊다. 이라크는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원유 매장국으로서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석유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석유산업의 부흥, 재건, 또한 장래까지 시야를 확대한다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제2차 대전 후, 석유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각 처에서 독립하여 나라를 세웠다. 석유가 발견된 개발도상국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도상국중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석유자원을 이용하여 경제개발, 국가재건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알제리,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앙골라 등에는 무장게릴라의 활동이나 부족간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국내치안이 확립되지 않고 정치상황도 언제나 불안정하다. 이라크, 나이지리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등은 군이 정권을 장악하여 독재정치를 하고, 석유의 부를 소수의 권력자가 독점하여 국민은 여전히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라크의 석유개발은 1901년에 최초의 유정 「차스

이라크의 경제는 전후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003년 GDP가 7.5%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는 급속한 회복을 보여 GDP는 29%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석유증산과 수출증가이다.

쿠1이 굴착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4년에 이라크국 영석유회사(INOC)가 설립되고, 1970년대의 석유국유화정책으로 예전부터 국내에서 조업하고 있던 국제기업을 접수했다. 1987년에 INOC는 석유성(石油省)과 통합되었다. 이라크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1,120억 배럴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이다. 이라크의 석유자원은 광범위하게 부존하지만 개발은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미 애널리스트들은 석유생산지가 주로 서부의 광대한 사막지대에 위치해 있고 1,000억배럴 이상으로도 예상할 수 있지만 개발되지 않은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애널리스트는 낙관을 부정하고 추가 계산하여도 기껏 450억배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라크의 원유는 API 비중 22~35도로 질적으로도 다양하다. 주요한 석유생산지는 루마이라와 키르쿠크 등 2개이다. 남부의 루마이라는 인접국 쿠웨이트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며, 663개의 유정이 있다. 주요 원유는 바스라 블렌드, 바스라 미디움(보통 API 30도, 황함량 2.6%), 바스라 헤비(API 22~24도, 황함량 3.4%)이다.

바스라 블렌드는 보통 API 32도, 황함량 1.95%이지만, 현재는 좀더 중질유 성상을 지니고 황함량도 많아 API 29~30도, 황함량 2.0% 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북부의 키르쿠크는 1927년에 발견된 북 이라크 유전의 중심지이다. 이 곳에는 337개의 유정(油井)이 있고, 생산원유는 보통 API 35도, 황함량 1.97%이지만, 전쟁으로 설비가 파손되어, 품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비중은 API 32~33도, 황함량은 2% 이상이다.

또한 이라크는 110조 입방피트의 확인매장량을 가진 천연가스의 보고이기도 하며 정밀 탐사시 150조 입방피트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라크는 석유에 의존한 에너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가스 쪽으로

도 시선을 돌리고 있고, 전쟁전에는 액화가스터미널의 건설에 착수하려고도 하였으나 장래는 불투명하다.

## 약탈 · 파괴가 석유생산에 최대장애

2003년 8월 중순 현재 이라크석유의 생산량은 기록이 심하지만 평균 100만b/d미만이였다. 8월 13일에 이라크의 주요한 석유수출 파이프라인인 북부의 키르쿠크 유전에서 터키의 세이한 항구로 재개통되었다. 그러나 동 라인은 곧바로 15, 17일의 사보타주에 의해서 다시 중단되었다. 이라크는 석유생산을 2003년 12월까지 200만b/d, 2004년 4월에는 280만b/d로 증산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는 남부와 북부 양 유전의 순조로운 생산여부에 달려있다.

이라크 전쟁기간 동안 약 1,500의 유정중 7곳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4월 14일, 남부 루마리아 지구의 마지막 화재가 진화되고 이로써 부흥을 향한 탄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전피해는 전쟁으로 인한 충격 자체보다는 전쟁후의 약탈과 사보타주에 의해 더 큰 생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라크 석유성 고문회의의장인 필립 캐롤은 「숙련된 프로다운 수법으로 중요한 설비를 파괴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7월 14일에는 주요한 석유생산 인프라(파이프라인, 동력장치 등)를 사보타주와 약탈로부터 방어하는 「Operation Power Crude」가 발족했다.

## 이라크의 정치 · 경제 현황

이라크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1차 대전 후인 1921년, 영국과 프랑스가 협의하여 구 터키의 영토를 분할하여 이라크와 요르단 두개의 왕국을 창건했다. 1958년에 쿠데타가 발생해 공화제로 이행되었고, 1968년부터 바스당이 정권을 장악하여 지배하여 왔다. 특히 사담 후세

인정권으로 되고나서 바스당의 독재가 강화되었다.

30년에 걸친 바스당의 지배체제가 붕괴된후 이라크는 이제부터 어떻게 스스로 헤쳐나갈 길을 선택할지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2003년 봄의 對미·영전쟁은 이라크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큰 사건이었다. 1980년대의 초반부터 이라크는 미국의 지원하에 對이란전쟁을 치루었고, 1990년대에는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미군중심의 국가연합군의 참전으로 확대된 걸프전을 벌였다. 걸프전쟁에서는 수도 바그다드의 함락이 멀지 않은 시점에서 미군 총사령관이 정전명령을 내렸다. 이 때 가장 선봉에 나서서 수도 가까이로 진격하고 있었던 프랑스군 등은 상당한 불만을 품었는데 이후 이라크전쟁에서 미국·프랑스간에 사사건건 의견대립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걸프전쟁에서 미 부시대통령(현 부시대통령의 아버지)이 후세인의 숨통을 끊지 않은 후유증을 현재 톡톡히 치루고 있는 듯이 보인다. 對이란 및 걸프전쟁, 그리고 10년 이상의 경제제재를 받아 이라크의 경제기반, 환경, 의료, 기타 사회적 지표는 크게 후퇴했다.

이라크의 경제는 전후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003년 GDP가 7.5%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는 급속한 회복을 보여 GDP는 29%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석유증산과 수출증가이다. 2003년 8월중순 이라크 부흥을 위해 투자국에 호소한 국제협동회의(CIC)에서 폴 블레머 행정관은 「이라크는 일시적으로 빈곤한 풍요한 나라」라고 말했다.

### 대외채무처리가 경제재건의 관건

이라크는 석유산업의 본격적인 부흥과 재건에 앞서 대외채무를 정리해야 한다. 대외채무가 정리되지 않으면 모처럼 석유로 외화를 벌더라도 채무변제에 유출되

어 경제에 도움이 되지않고 국민생활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라크의 대외채무는 1970~1980년대에 크게 증가한 바가 있고 오래된 것도 많다. 채무내용을 살펴보면 금액도 가지각색이어서 채권국이 주장하는 숫자도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誌」(2003.4.5)의 숫자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라크의 대외채무

(단위: 억달러)

국 가	금 액	국 가	금 액
걸프만 국가	550	기 타	261
파리클럽(선진국 정부)	95	무역채무	48
중부 유럽	40	합 계	1,165
러시아	80	쿠웨이트 배상금	2,000
프랑스	80	총 계	3,165
세계은행	11		

이에 따르면 이라크는 걸프전쟁의 피해에 대한 쿠웨이트 배상금 2,000억달러를 포함해서 총액 3,165억달러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걸프만 국가의 채권은 이란·이라크 전쟁당시의 경제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러시아의 채권 80억달러는 구소련 시대부터 무기수출대금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80억달러는 석유회사인 토탈(Total)이 걸프전쟁당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정부가 떠안은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액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신생 이라크」의 입장에서 보아 타당성이 의심되는 채무도 많다.

미국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이라크의 석유수입은 연간 150~180억달러이다. 3,165억달러의 채무를 완전히 갚기 위해서는 매년 석유수입을 전부 쏟아부더라도 18~21년 걸린다.

그럴 경우 이라크 국민은 앞으로 20년이나 현재까지의 UN 경제제재하와 같은 빈곤상태로 지내야 한다. 그러면 민중의 불만이 높아져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

이라크는 석유산업의 본격적인 부흥과 재건에 앞서 대외채무를 정리해야 한다. 대외채무가 정리되지 않으면 모처럼 석유로 외화를 벌더라도 채무변제에 유출되어 경제에 도움이 되지않고 국민생활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

을 배제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채무는 지불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선진국 정부나 정부계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공적채권이 직접 대상으로 95억달러이고, 각국의 관련채권까지 포함하면 천억달러를 넘는다. 이라크에 대한 채권이 거의 없는 미국은 대폭 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변제 연기나 동결에는 동의하지만 채권 면제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대폭 면제하면 재정상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소폭 면제, 대폭 연기의 조합을 수 차례 반복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상각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라크측으로서는 일찌기 결말을 내는 편이 좋다. 연기하면 금리문제가 발생하거나 향후 외화도입 시 채무순위, 민간자본의 도입 등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 석유는 국가재건의 혈액

걸프전쟁 직후인 1991년 8월 UN안보리결의 706호, 712호로 이라크 석유의 한정수출(원유·식량교환계획)이 제안되었다. 수출액은 6개월간 16억달러로 이중 쿠웨이트 등의 배상기금으로 30%, UN경비에 5%를 충당하고 이라크의 수취액은 10.4억 달러이다. 이라크는 거부했으나 그 후로도 협의가 계속되었다.

1995년 4월의 안보리결의 986호에서 현재의 방식이 결정되었다. 수출액이 90일당 10억달러로 180일간 계속된다. 배분은 쿠웨이트 배상금 30%, UN경비5%, 쿠르드족 보호비 1.3~1.5억달러를 각각 지불하고 수출 수속비용실적을 공제한후 잔액을 식량, 의약품 등 인도물자의 수입에 충당하는 것이다. 수출대금은 뉴욕의 은행에 예탁하여 UN이 관리하며 수입물품은 이라크의 신청을 UN이 심사한다. 식량 등의 배급도 UN직원이 이라크의 현지에서 감시한다. 즉 수입과 지출 모

두를 UN이 관리하고 있다.

6개월간 20억달러를 수출하더라도 실수입은 약 9.8억달러 밖에 안된다. 1991년도 안(案)보다 조건이 나쁘다. 당연히 이라크는 거부했다. 하지만 교섭이 계속되어 실제로 원유수출이 시작된 것이 1996년 12월이다. 한편, 이라크는 UN의 경제제재로 국민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유아 사망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세계에 알렸다. 국제여론에 의한 동정을 등에 업으려는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다. UN은 필요물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1998년 5월에 수출액을 52억달러로 늘렸다. 또한 1999년 12월에는 수출금액의 상한선을 철폐했다.

원유 생산량은 많은 달에는 250만b/d에 달하고 있다. 국내소비가 약 40만b/d, UN 승인하에 터키, 요르단에 대한 육상수출이 약10만b/d, 나머지인 200만b/d 전후가 해상수출이지만 얼마전까지는 사담 후세인의 아들 등도 관여하여 상당한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2년 12월부터의 제13차 한정수출계획은 올해 6월 3일에 만기가 되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지난 5월 9일, 미·영국 양국은 안보리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출했다.

『경제제재를 즉시 해제하고, 이라크중앙은행에 「이라크 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석유수출대금을 일괄 예탁한다. 기금의 용도는 미·영 양국이 연합군 잠정당국과 협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 인도지원이나 부흥사업에 충당한다. UN, IMF, 세계은행 등으로 구성하는 「국제자문위원회」가 기금의 용도를 감시한다.』 이 안은 일년간으로 하여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라크의 원유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던 국가 석유판매기구인 SOMO(Iraq's State Oil Marketing Organisation)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후세인 대통령 일족 등의 지시든간에 밀수에 관여하거나 원유대금의 추가징수등 UN의 결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

1) 동일기업이면서 편의상 다른 회사처럼 꾸며놓은 회사

고 있었던 책임은 추궁해야 한다. 수출선도 지금까지의 Dummy 회사<sup>1)</sup>가 아니라 최종수요처에 직접 판매해야 한다. 원유생산에 꼭 필요한 유전의 보수는 미국 기업이 진행하고 있다. UN의 경제제재하에서 10년 이상 기간동안 유전의 계획적인 유지, 보수,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장기전망에 기초를 둔 유전관리, 개발계획, 생산계획의 본격적인 책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먼저 이라크 국가차원에서 석유산업 기본방침 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 서구형 민주주의 정착이 과제

이라크는 다민족 국가이다. 인구의 95%가 이슬람교이지만, 후세인정권은 그중에서도 소수파(33.9%)인 수니파에 속한다. 그 때문에 다수파인 시아파(61.2%)나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전체 인구의 16%)등을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억압하여 왔다. 또한 사담 후세인 고향인 티그리트 출신자를 군의 핵심인력으로서 우대하여 왔다. 후세인은 소수 핵심세력을 이용, 독재강권으로 정권을 유지하여 간신히 통일국가의 면모를 보일수 있었다.

원래 국가의식보다 부족의식이나 종파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후세인 정권의 타도를 스스로의 기회로 포착하여 잠정권력인 미·영군군 모두를 적대시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더구나 미·영국의 의도가 풍부한 석유자원 확보에 있다고 보여져 어쩔 수 없이 「민주 이라크」의 재건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지금, 미·영 양국에 의한 연합군 잠정당국(CPA)의 통치하에 있다. 미국 정부는 당초 해외에 있는 이라크인 반체제파를 기용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라크 국내에 지지기반 및 인맥도 없고, 실제로 통치를 맡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졌다. 2003년 5월 6일에 부시 미국대통령은, 이라크 파견대사 및

CPA 행정관으로서 폴 블레머를 지명했다. 또한 지도자격인 이라크인 25명에 의한 「정책회의」가 지난 7월 13일에 열렸다. 정책회의의 목표는 이라크 부흥이며 이를 위해 완전히 자유롭고 부정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많은 산유국에서는 석유의 부를 수탈하기 위해서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이라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백년대계를 확립해 주는 것이 미국의 책임이다. 부시대통령은 이라크를 민주화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라크 국민의 큰 자산인 석유수입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교육, 의료, 위생, 직업훈련 등으로 돌려 국민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석유수입을 투명하게 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틀을 시초에 확립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정권의 부패를 막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제나 선거제도의 도입만으로 민주주의는 자라나지 않는다.

이라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독립국가이다. 하지만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는 독재정권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의 아프리카, 소련체제붕괴후 동구권 유럽, 발칸지역 등에서 보였던 기초부터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독재정권에 의해 왜곡된 부분, 독재체제에 오염된 정치체제, 통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풍부한 석유자원을 지닌 건전한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세계에는 실패한 산유국이 많이 있다. 미국은 그들을 잘 연구하여 이라크를 훌륭한 산유국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이라크의 실패는 결국 미국의 실패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④

(순간 석유정책 2003.6.10, 오일리포트 2003.9.22 참조)